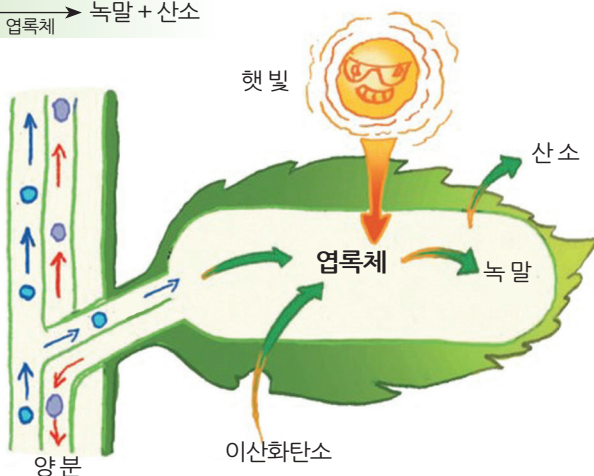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2 Number 10 2014

물 + 이산화탄소 $\xrightarrow{\text{엽록체}}$ 녹말 + 산소



식물에 관하여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시며 식물을 창조하신다.

식물의 녹색은 우리 시야에 푸른 하늘 다음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색이다. 녹색은 가시광선인 빨-주-노-초-파-남-보에서 정가운데 위치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눈에 가장 편안함을 제공해준다. 식물의 잎이 녹색을 내는 이유는 엽록소라는 색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엽록소는 단지 녹색이라는 편안한 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바로 광합성이란 과정이다. 단어가 말하듯이 빛을 합성시킨

광합성 과정을 알고 나니 이 말씀이 분명히 다가오지 않는가?
이 구절을 읽으며 빛, 물, 이산화탄소를 통해 우리의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산소로 전환시키는 식품공장의 설계자 하나님의
멋진 솜씨와 계획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는 의미다. 빛은 에너지의 가장 근본 물질이며 지구상에 오는 빛 에너지의 거의 모두는 태양에게서 온다. 그렇지만 사람과 동물이 태양 빛에 몸을 아무리 노출시킨다고 해도 그 귀중한 빛 에너지를 자신의 몸에 사용하도록 스스로 붙잡아두지 못한다. 검게 그을려지고 결국 탈진해서 쓰러져버리고 말 것이다. 즉 이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하도록 해주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녹색식물이 바로 이 빛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힘을 내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즉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로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탄수화물은 소위 녹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쌀, 옥수수, 감자를 먹을 때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이 녹말은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모두 식물에서 얻어진다. 쉽게 표현하자면 녹색을 내는 엽록소 하나하나가 놀라운 식품공장이란 의미다. 즉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섭취하는데 식물이 빛과 동물이나 사람 사이에서 빛 에너지를 음식(!)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더 다루어 보면, 엽록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빛뿐 아니라 물과 우리가 숨을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사용된다. 이들이 합성되어 탄수화물과 함께 산소가 방출된다. 산소는 어떤 기체인가? 인간과 동물이 숨을 쉬는데 필수적인 기체다. 녹색식물은 빛, 물, 이산화탄소 세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서 힘을 낼 수 있는 탄수화물뿐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 꼭 필요한 산소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녹색 식품공장은 매연이 아닌 오히려 우리와 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기체를 뿜어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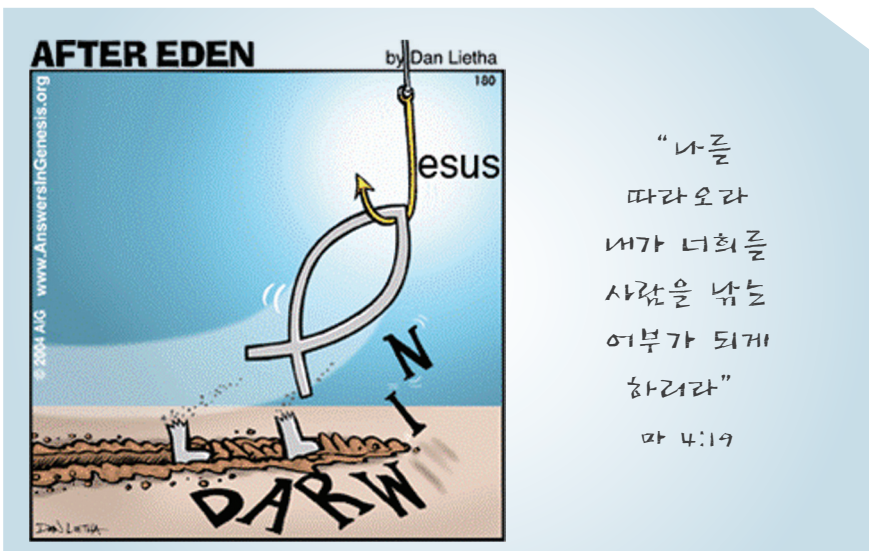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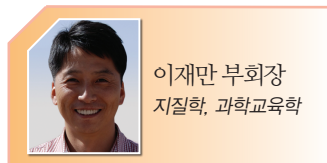
성경은 식물이 사람과 동물의 '먹거리'를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창 1:29, 30). 이는 정말로 정확한 표현이다. 광합성 과정을 알고 나니 이 말씀이 분명히 다가오지 않는가? 이 구절을 읽으며 빛, 물, 이산화탄소를 통해 우리의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산소로 전환시키는 식품공장의 설계자 하

나님의 멋진 솜씨와 계획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녹색의 식물을 볼 때마다 독자들에게 우리의 먹거리를 제조하는 수 많은 하나님의 식품 공장으로 보이기를 기대한다.

식물은 동물과 같이 스스로 번식한다. 이는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사람과 동물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선 필수적 조건이다. 사실 교배를 통한 번식을 제외하고는 식물과 동물의 격차는 너무 크다. 동물에게는 있는 뇌가 식물에선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아직도 어디서 식물의 신진대사가 조절되는지 모른다. 동물은 처음 태어날 때면 거의 모든 기관을 갖춘 반면, 식물은 씨에서부터 싹이 틈 후에 꽃이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식물과 동물이 한 조상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하려는 진화론자의 노력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혀왔다.

하나님께서 아래 욥에게 하신 말씀은 자신께서 식물을 관리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킨다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흠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돌아나게 하였느냐?” (욥 38: 26, 27)





창조 주간의 제 4일째가 지났을 때 지구는 물과 바다와 대기가 있고 해와 별들이 지구에 빛을 비추고 식물들이 준비 되었다. 이제 지구는 드디어 생명체들을 보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5일째에 처음으로 생명이 있는 동물(moving creature that has life)들을 창조 하셨다. 큰 바다 짐승들(great sea monsters)과 물에 사는 동물들(living creature that moves), 그리고 날개를 가진 새들(winged bird)을 각각 종류대로(after their kind) 창조하셨다(창 1:20-21). 성경에서 '생명체'라 함은 피를 가진 동물만을 의미하는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레 17:11, 14).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므로 물에 사는 생명체든 날개를 가진 생명체든 각 환경에 완전히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최적화 된 상태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될 때 수영을 배워야 하는 물고기가 없었고 비행을 연습해야 하는 새들이 없었다. 각 생물들은, 식물들이 교배의 한계를 가진 '종류대로' 창조 된 것처럼, 수생 동물들이나 날개 가진 동물들도 '종류대로' 창조 되었다. 또 하나님은 그 동물들이 물 속 가득하게 번성하도록,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다. 곧바로 알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어미들로 창조 하셨던 것이다.

물에 사는 생물 중에 특별히 큰 바다 짐승들(great sea monsters)을 지목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 번역본들은 이 동물을 고래로 혹은 큰 물고기로 번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0절에 기록된 큰 바다 짐승들은 고래가 아니다. 히브리어로 '탄닌'(tannin)이란 동물인데 멸종된 수룡으로 보인다.

물 속에 사는 생명체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보여주는 신기하고 놀라운 동물들이 많다. 현재 가장 큰 동물은 청고래로 알려져 있는데 길이가 30미터 무게가 170톤이나 되어 멸종 된 공룡들보다 더 크다. 입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이 90톤이지만 목구멍은 비치볼이 들어갈 정도로 작다. 심장은 600 kg이나 되는데 작은 자동차와 맞먹는 크기다. 새끼가 태어 날 때 하마만 한데 처음 7개월 동안은 하루에 400리터의 우유를 마시며 몸무게가 매일 90 kg씩 늘어난다.

물 속에서 빛의 굴절율을 계산하여 물을 뿜어 벌레를 맞춰 잡아먹는 물총고기, 민물에서 태어나 바닷물에서 성장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기가막히게 찾아와 알을 낳고 죽는 연어, 알에서 깨어나 4500 km나 떨어진 브라질 동해안으로 정확히 찾아오는 녹색 거북, 최고의 밀물일 때 바닷가 모래밭에 기어나와 알을 낳는 그로니온(grunion) 등 상상을 초월하는 물속 생물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창조물들이다. 그러나 어디 이 뿐일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어느 물고기 한 마리라도 사소한 것이 없다. 그 다양한 무늬와 모양과 색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영하는 물고기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완벽한 기능들을 생각해 볼 때 모두 다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며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다.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은 또 어떤가? 땅 위에서는 다소 뒤뚱거리기도 하지만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완벽함이란 과학자들의 경이 그 자체다. 날아갈 때 체온을 보호하는 깃털은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더 질기다. 몸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속이 빈 뼈,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최대로 할 수 있는 피의 흐름과 허파 등은 비행기를 디자인 하는 공학자들을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다. 깃털의 아름다운 배열과 무늬가 3차원으로 조직되도록 하는 정보는 도대체 어떤 것이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유일한 분, 성경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 수 없다.

그 창조자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는 날개깃을 아무리 신나게 해도 날아갈 수 없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타조가 원래는 날 수 있는 새였는데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이 없어 지자 뚱뚱해지고 날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해 지금은 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조의 화석은 예전에도 날 수 없는 모습이었고 날아다녔다는 타조의 조상 화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욥 39:18). 처음부터 타조는 날지 못하는 대신 잘 달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하신다. 증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탐사

시카고 베들레헴교회

지난 8월 12-15일 시카고 베들레헴교회(담임목사 이상규)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습니다. 시카고 베들레헴교회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대하여 창조과학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지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같은 기간에 2차 창조과학탐사를 계획했습니다. 캠페션의 서경인 목사님 가족이 함께 참석해서 귀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대구 화원교회

지난 8월 16-21일 대구 화원교회(담임목사 신용기)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만 선교사가 신년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번 참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과학탐사가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지 확인하며, 내년 2월 2세들을 위하여, 그리고 8월 성인들을 위한 연속적인 창조과학탐사를 계획했습니다.

밴쿠버 성산교회

지난 8월 25-28일 밴쿠버 성산교회(담임목사 오영석)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습니다. 지난 8월 부모들이 참석한 이후 2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경과 진화론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믿음의 근거인 성경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는 오는 12월 밴쿠버 교회협의회 연합집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밴쿠버 성산교회



베들레헴교회



얼바인 온누리교회 목회자초청

지난 9월 1-3일 얼바인 온누리교회(담당목사 권혁빈)에서 오렌지 카운티의 목회자 내외를 초청하며 창조과학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 내외분 40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진지하고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들은 창조과학 사역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며, 이곳에서 배운 성경의 사실됨이 각 교회에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귀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얼바인 온누리교회께 감사드립니다.

창조과학 세미나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목사: 남성수) 8월6일-9월 3일까지 수요일에배에서 4 차례에 걸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본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인과 2세들을 위한 창조과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영광교회 창조과학 정기 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 2004년 3분기 정기 세미나가 9월 2일-28일까지 매 주일 1:00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과 UFO, 지구의 나이, 창세기 1장으로 이제만 선교사와 최우성 박사가 강의 합니다.

과테말라 창조과학 강연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이동용 박사와 창조과학선교회 중부 팀이 과테말라 시티 다음

으로 큰 도시인 게살떼낭고를 중심으로 창조과학 강연을 하였습니다. Jesus El Camino교회, Almolonga Calvary교회, Cantel지역교회, Tejutra지역교회,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 우에우에떼낭고 실업인들, 테후트라 고교 및 우에우에떼낭고 고교, 상칼루이스 대학, 라디오 방송 및 TV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경말씀의 증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린 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최상득 선교사님, 현지교회 프란치스코와 우발도 목사님, 그리고 통역으로 수고한 Lionel과 Luben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중부지부는 지난 2001년 부터 매 3년 마다 과테말라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테말라의 최상득-최경희 부부 선교사(SMF시카고 헬로교회

과테말라 창조과학 강연



파송)의 주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강연은 2012년 다녀온 후 2년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창조과학을 통한 확실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 6기 ITCM 훈련생 모집

제 6기 ITCM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프로그램이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14일까지 8 주간 진행 될 예정입니다.

본 과정은 참가자들은 창조과학 지식을 통해 성경적 창조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증거들을 배우게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경공부, 창조과학 도서 읽기, 창조과학 탐사여행, 세미나 등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훈련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과학선교회 웹사이트 “훈련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젊은이들은 학교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창조과학 전문 사역자도 배출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와 추천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배의 한계

원래 종(species)과 종류(kind)는 모두 다 교배의 한계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다. '종'이란 단어는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 대신 성경에서는 '종류'라는 단어만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종과 종류는 실제적으로 동일한 교배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동물이건 식물이건 교배의 한계를 정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백만 종의 교배 가능성을 모두 다 실험해 보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연 상태에서는 교배되는 현상을 관찰하기가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종의 한계 혹은 종류의 한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한 종의 생물체가 여러 개의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 심각한 경우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분류된 종들이 서로 자연교배가 되는 현상들이다.

개 과(Canidae) 동물들의 분류를 보자. 개 과 동물에는 개, ding고, 늑대, 코요테, 자칼 등이 포함 된 개 속(Canis), 들개 속(Speothos), 승냥이 속(Cuon), 그리고 대부분의 여우들이 속해 있는 여우 속(Vulpus), 회색여우 속(Urocyon) 등이 있다. 종(species)의 수로는 개 족 20종과 여우 족 15 종 등 약 35종으로 분류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종간에는 서로 교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다.

늑대, 개, ding고는 같은 종(Canis lupus)으로 분류되고 실제로 서로 자연교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늑대는 다른 종인 코요테(Canis latrans)와도 교배 되어 붉은늑대(red wolf)를 낳는다. 자칼(Canis aureus)도 늑대나 코요테와 거의 구별 없이 자연교배가 되고 생식력 있는 자손을 낳기 때문에 Thos속에서 Canis 속으로 재 분류하였다. 또 과거에는 다른 속으로 분류했던 북극여우(Alopex lagopus 지금은Vulpes lagopus로 바꿈)는 다른

종인 붉은여우(*Vulpes vulpes*)와 교배하여 생식력 있는 자손을 낳기도 한다. 늑대 족과 여우 족의 교배는 희귀하지만, 인도의 벵갈 지역의 암 여우(*Vulpes bengalensis*)와 개 사이에서 그리고 코요테와 붉은여우 사이에서 새끼를 낳았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처럼 개 과에 속한 여러 종들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 되어 있다.

고양이 과(*Felidae*)의 경우도 개 과와 마찬가지로 분류 한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종과 속을 나누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과거의 분류 방식에도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 고양이과는 크게 표범족(호랑이와 사자 등 큰 동물들이 포함 됨)과 고양이족(고양이, 퓨마, 오셀롯 등 비교적 작은 동물들이 포함 됨)으로 분류한다. 표범족에는 3속 6종이 속해 있고 고양이 족에는 12속 27종으로 총 약 33종으로 분류 되고 있다.

사자와 호랑이, 사자와 표범, 사자와 재규어, 호랑이와 표범, 재규어와 표범 등 표범 속에 속하는 종들간의 교배는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들 중 어떤 경우에는 생식 능력이 있는 새끼가 태어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고양이-오셀롯-퓨



마-호랑이-사자의 연결교배가 가능하다. 즉, 고양이의 유전자가 간접적으로 사자에게까지 전해 질 수 있다는 뜻이다.

말 과(*Equidae*)에는 말 속(*Equus*) 하나 뿐이며 여기에 야생말, 아프리카 당나귀, 아시아 당나귀, 캥 당나귀, 그레비 얼룩말, 사바나 얼룩말, 산 얼룩말 이렇게 일곱 종(species)으로 세분 된다. 이들은 모두 다 서로 교배가 가능한데 잡종들은 거의 대부분 생식 능력이 없다. 노새(mule)는 숫당나귀와 암말, 버새(hinny)는 숫말과 암당나귀의 잡종이다. 노새와 버새는 6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64개의 염색체를 가진 말(*Equus ferus*)과 62개의 염색체인 당나귀(*Equus asinus*)가 교배 된 결과다. 그러나 이런 교배 가능성과 가끔 생식 능력이 있는 잡종이 보고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속의 분류 체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다. 어떤 창조 과학자는 이 동물들 전체를 한 종류(kind)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와 고양이의 교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성공했다는 보고가 없다. 이렇듯 교배의 한계 안에 있는 종(species)들이 있는 반면에 교배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다른 종(species)들이 있는 것이다. 전자의 종들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창조 된 한 종류(created kind, 히브리어 baramin)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종류(kind) 안에는 일상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교배하지는 않지만 교배가 가능한 여러 종(species)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에 교배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종들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처음부터 서로 다르게 창조 된 다른 종류(kind)들이었다.

최우성 / 생리학 박사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

과학자들이 한 때 땅 위에 살았던 동물 중 가장 큰 동물들을 포함하는 그룹인 티타노사우르스(Titanosaur)의 화석 뼈를 복원했다. 공룡에 대해 열성이 있는 사람들은 공룡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이 화석의 표본이 거의 45%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화석들보다도 더 자세한 것들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적 창조 모델에 일치하는 몇 가지 내용도 보여준다.

이 공룡은 너무 커서 아마도 어떤 동물들도 이 공룡을 가로막거나 위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학 보고 저널 (Scientific Report)에 기재하는 과학자들은 이 공룡을 드리드노우터스 크라니 (Drednoughtus schrani) 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여기에서 드리드노우트 (Drednought) 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티타노사우르스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10개 이상의 종이 있는데, 모두 “가장 큰 공룡”이라는 의미이다. 알라모사우르스 (Alamosaurus), 아르헨티노사우르스 (Aregentinosauros), 그리고 푸탈론고사우르스 (Futalongosaurus) 는 모두 거대한 공룡들 순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다. 이 그룹의 공룡 중 가장 완성된 화석 뼈를 갖춘 드리드노우터스의 표본은 꼬리의 대부분과 엉덩이뼈 그리고 여러 개의 갈비뼈와 다리뼈들을 갖고 있다. 그 뼈 중 어떤 것도 기형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엉뚱한 곳에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드리드노우터스의 화석 뼈는 마치 전문적인 공예품과 같다. 이것은 명백히 창조되었다. 어디에도 누군가가 진화를 기대하도록 할 만한 반쯤 형성된 (진화의) 특징들은 없었다.

이 연구자들은 이 공룡의 전체 몸의 길이를 85피트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 공룡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저자들은 이 공룡이 어리다는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함께 연결되지 않은 어깨뼈들과 같은 것들이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 같은 이전에 발견 된 화석들은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심지어 드리드노우터스보다도 컸다. 아마도 이러한 화석들은 더 성숙한 드리드노우터스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노아가 두 마리의 드리드노우터스들을 방주에 태울 수 있었을까? 많은 진화론자는 이것에 의구심을 갖는데, 그들은 방주가 그렇게 큰 동물들을 태우기에는 너무 작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지어 티타노사우리드는 약 6인치 크기의 알에서 부화한다. 해부학적으로 아직 어린 이85 피트의 드리드노우터스는 이미 다 성장했는지 아니면 재빠르게 성장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어린 공룡은 작았기 때문에 “노아 방주: 가능성 연구 (Noah’s Ark: a Feasibility Study)”라는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방주에 잘 맞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십 개의 다른 종의 공룡들은 어땠을까? 모든 종이 두 마리씩 방주에 탔을까? 노아는 아마도 티타노사우루스 단 두 종류만 태웠을 것이다. 방주가 땅에 닿아 공룡의 후손들이 얼마나 생존했는지 아무도 알 순 없겠지만, 그들은 아마도 오래전에 모두 멸종되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드리드노우터스가 엄청나게 큰 130,700파운드의 무게를 지녔으리라 추정한다. 이 무게는 대략 12마리의 아프리카코끼리의 무게와 같은 정도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동물이 문혀 화석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떤 과정에 의해 아주 빠른 속도로 전체 몸이 퇴적물에 파묻히게 되었다. 그러나 퇴적물을 포함한 물이 빠르게 흐르면서, 이 공룡의 몸이 부서질 정도로 그리고 머리와 다리가 분산되기에 충분한 힘을 가했을 것이다. 아마도 드리드노우터스는 실제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엄청나게 밀려오는 홍수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유에스에이 투데이 (USA Today)는 “약 8천만 년 전 강한 급류에 휩쓸리자마자 드리드노우터스들은 이 퇴적층 사이에 남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코끼리 몇 마리 크기의 공룡에게 썰도하는 저탁류와 해일은 창세기 홍수와 잘 들어맞는다. 그리고 드리드노우터스의 잘 보존된 해부학은 공룡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보여준다.

Brian Thomas, M.S., ICR 작가

번역: 조희천 (지구물리학 박사과정)

창조과학 탐사

간 증

7/29-8/3, 2013

2년 전에 아내와 함께 와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지형을, 그랜드 캐년을 통하여 보았다면 이번 투어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게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변도우 장로 <부산 동삼교회>

올바른 시야,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처음이 얼마나 좋으면 심판의 증거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성경책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진짜 소중히 생각합니다. - 안종욱 <부산 수영로교회>

이 여행을 통하여 처음이 아름다웠다는 말씀에 많은 감명을 가졌으며 피부적으로 느끼고 현재까지 알고 있던 과학지식, 전문 지식에 더 많이 활용, 이해하게 되었으며, 전문가들 학회 발표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 전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해봅니다. - 안명석 <대학교회>

꼭 참석하고 싶어 기대하고 왔지만 이렇게 큰 감동을 느끼게 한 여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역사는 하나이며,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 장윤권 장로 <부산 동삼교회>

진화론의 위력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자녀들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치지 못한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자연의 풍경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아프고 슬펐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열심히 전파 하리라고. - 노혜정 <부산 동삼교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습니다. - 손동후 목사 <부산 동삼교회>

두 아들, 내년 여름 휴가 때는 어떠한 일을 미루고 서라도 보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돌아갑니다. - 김수언 집사, 김태숙 권사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

학교에서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강의와 열정, 또 다른 어른 분들이 먼저 사명감을 갖고 창조과학 사역에 임함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 박지현 <서울신림교회>

크리스천 과학 교육자 였지만 창조 과학을 멀리해왔지만 이번 창조탐사에 참가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각 층에 다양한 표준 화석이 산출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동일과정설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진화론 보다는 더 과학적인 창조론을 ... 동료 교수들에게 이 탐사여행을 적극 권면하고 두 자녀에게도 꼭 창조탐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윤마병 <대전 우리 레포즈 침례교회>

기대이상 너무나 감동적인 여행 과정이었고 이 곳에 제가 속해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고 제 딸들에게도 미리 기도하며 이 탐사여행을 참여할 수 있게 준비 시키겠습니다. - 정영숙 <대전 우리 레포즈 교회>

제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알고 창조과학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몰랐고 진화론에 매여 있었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지승경 집사 <부산 부전교회>

알게 될수록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성경, 충격을 안고 돌아갑니다. - 이찬영 <부산 영안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자이언 캐년을 통화할 때 광대하신 하나님,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나는 듯한 감동과 가슴 벅찬 선물을 받았습니다. - 조선희 <부산 영안교회>

이번 창조과학탐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고, 하나님이 더욱 더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 - 이혜리 <부산 영안교회>

2011년 이후 2번째로 참여한 창조과학탐사, 첫 번째 탐사가 나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에 너무나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두 번째 탐사였습니다. ... 더욱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충실히 준비하여 전할 것이며 늘 주님 기뻐하시는 삶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 이지훈 집사 <부산 부전교회>

지식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 현실로 합해지면서 창조과학 탐사여행의 힘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그랜드 캐년의 첫째 날, 셋째 날, 노아홍수 지층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 이었다. - 엄기돈 <나성 순복음 교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창조과학선교회를 위해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도 전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김순희 권사 <부산 동삼교회>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딸과 사위에게도 꼭 선물하고 싶으며 이런 여행에 참여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 이명이 집사 <대학교교회>

2014년

- 10/2-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이재만
- 10/10-13 덴버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CO
- 10/13 중부창조과학학교 (이재만)
- 10/17-19 콜롬비아 한인침례교회 (이재만)
- 10/21 Cerritos Coffee Break (이재만), CA
- 10/28-12/9 Southern Calif. Bible College LA campus (최우성)
- 10/31-12/2 한국 방문 (이재만), 한국

- 12/4-8 창조과학탐사 (빛나교회), 최우성
- 12/4-10 뉴저지 온누리교회 (이재만), NJ
- 12/11-14 밴쿠버 교회협의회 (이재만), Canada
- 12/15-23 미주 동부 순회 세미나 (이재만)
- 12/29-31 베다니 장로교회 (EM, 김선옥), GA

2015년

- 2/2-11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이재만
- 2/16-19 창조과학탐사 (행복화원교회), 이재만
- 2/28-3/1 산라파엘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CA
- 3/2-5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온누리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